

## <要約>

### I. 日本 不況期の 産業 構造 變化

#### ○ (不況 局面의 區分)

- 일본은 패전, 1·2차 오일 쇼크, 엔고, 버블 경제 붕괴 등 불황 국면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산업 구조 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음
- 50~60년대의 중화학 공업화, 70년대의 에너지 절약화, 80년대의 전자화 및 서비스화, 90년대의 해외 진출을 통한 국제 분업화 등이 그 예임

#### ○ (구조적 特徵)

- 일본 산업의 특징은 주도 산업을 중심으로한 動態的인 성장과 선진 기술의 빠른 적용 및 응용에 있음
- 이외에도 산업 조직의 유연성과 산업 기술의 연계성, 산업 구조상이나 정책상의 경쟁 우위 등이 경제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었음

### II. 엔高時의 不況 克服 戰略

#### ○ (산업 내부의 경쟁력 強化)

- 정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경쟁력을 강화
  - 엔저 시기에 들어서면서 경쟁력 강화 노력이 결실을 봄
- 정부는 각종 規制 緩和와 유연한 노동 정책을 통해서 고비용 구조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
  - 고비용 구조 시정을 위해서는 물류·에너지·정보통신·금융 관련 규제를 철저히 완화하였고, 노동 및 고용 제도를 개혁해 노사 모두에게 유연한 고용 시스템을 구축
- 기업은 비용 절감, 기술 혁신,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
  - 생산성 향상, 경영 합리화, 해외 자재 조달 등을 통한 원가 절감, 기술 개발 투자 규모 확대, 기업간 공동 제휴 프로그램 마련 등이 그 노력들임
- 근로자도 임금 상승 자제, 적극적인 자기 개발 등에 참여함으로써 불황 극복을 위해 協力함

○ (해외 進出을 통한 국제 분업화)

- 엔고로 인한 불황 타개를 위하여 생산 거점을 해외로 적극적으로 이전하여 국제 분업화를 실현
  - 엔고 이후 지속적으로 해외 투자가 이루어져 일본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1985년 3%에서 1995년에는 10%로 높아짐
-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 목표는 크게 해외 부품 조달, 무역 장벽 회피, 환율 위험에 대한 헤징으로 구분
  - 해외 부품 조달은 수직적 분업화 달성, 무역 장벽 회피는 현지 생산 체제 구축을 통한 수출 증대, 환율 위험에 대한 헤징은 환율 부작용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III. 엔低 以後의 不況 克服 戰略

○ (수평적 分業 구조로의 변화와 M&A 활성화)

- 해외 직접 투자의 기본 방향이 수직 분업 구조 달성에서 수평 분업 구조 달성으로 변화
  - 과거와 같은 공정 분업화 방식의 수직 분업 구조에서 현지 완결 형태의 수평 분업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이를 통해서 산업 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며, 현지 수요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함
- 최근에는 미국 등 선진국의 첨단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M&A가 급증
  - 이는 첨단 산업 부문으로의 효율적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산업 空洞化에 대응과 글로벌 戰略의 재구상)

- 해외 직접 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로컬 투 로컬(Local to Local) 사업”이나 “신산업 육성 계획”을 수행
  - 로컬 투 로컬 사업은 선진국과의 수평 분업 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신산업 육성 계획은 주도 산업 창출을 통한 고용 기회 확대와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함
- 2000년대에도 자동차·기계 등 기간 산업의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위해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모색
  - 산업별로 해당 산업의 특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을 구상

#### IV. 우리나라의 不況 克服에 주는 示唆點

##### ○ (우리나라와 일본의 불황 상황 比較)

-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불황은 산업 景氣 변동 측면과 산업 구조 전환 측면이 複合되어 있는 특성을 보임
  - 그리고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산업 부문의 총체적인 경쟁력 약화라는 점에서는 일본의 엔고 불황과 비슷하지만, 주도 산업 부재에 의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엔저이후의 상황과 유사한 점을 보임
  - 일본의 불황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총체적인 경쟁력 약화, 고비용 생산 구조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기술력 및 생산성, 해외 분업 체제 구축 등이 열위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음

##### ○ (우리의 불황 克服 방안)

- 단기 과제로는 불황 극복을 위하여 정부, 기업, 근로자가 삼위 일체가 되어 산업 체질 개선에 노력해야 함. 또한 R&D를 확충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서둘러야 함
  - 자동차 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부품 공용화, 생산 방식 전환 등을 도모함
  - 공작기계 산업은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서둘러 개발하고, 애프터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
  - PC 및 반도체 산업의 경우는 기술 개발로 제품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하며, 공동 기술 개발 및 부품 공용화를 위한 기업간 제휴를 활성화 시켜야 함
  - 조선 산업은 기본 부품 및 공정의 해외 생산을 더욱 확대해 나가며,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 방안을 수립·실천함
- 장기 과제로는 글로벌 경영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현지화 경영에 박차를 가해야 함. 그리고, 우주항공, 정보통신, 신소재, 바이오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배가시켜 산업 구조 조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함
  - 현지화 경영은 일련의 생산 프로세스가 현지 문화에 바탕을 두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통하여 환율 및 경기에 中和적인 경영 체제를 구축함
  - 산업 정책의 목표는 규제 완화, 제도 개선, 환경 정비 등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잡아나가야 함

## I. 日本 不況期의 産業 構造 變化

### ○ (不況 局面의 區分)

- 일본은 패전, 1·2차 오일 쇼크, 엔고, 버블 경제 붕괴 등 불황 국면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산업 구조 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음
- 50~60년대의 중화학 공업화, 70년대의 에너지 절약화, 80년대의 전자화 및 서비스화, 90년대의 해외 진출을 통한 국제 분업화 등이 그예임

### ○ (구조적 特徵)

- 일본 산업의 특징은 주도 산업을 중심으로한 動態的인 성장과 선진 기술의 빠른 적용 및 응용에 있음
- 이외에도 산업 조직의 유연성과 산업 기술의 연계성, 산업 구조상이나 정책상의 경쟁 우위 등이 경제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었음

## 1. 불황 국면의 구분

1·2 차 오일 쇼크, 엔고, 버블 경제 붕괴가 일본 산업 구조 변화를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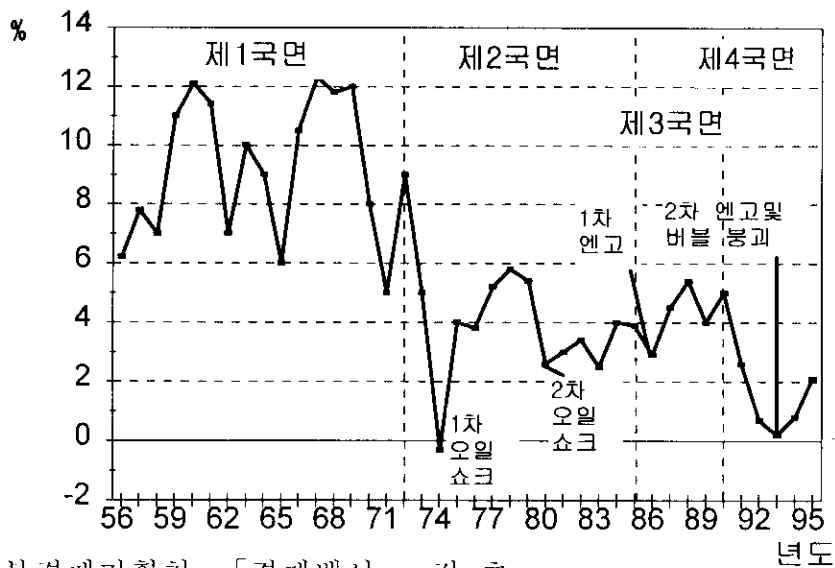
### ○ 일본 경제의 불황기는 크게 4가지 시기로 구분

- 먼저 50~60년대의 고도 성장기로서 이때 일본은 패전의 불황을 딛고 매년 10% 이상 경제 성장을 지속한 시기였음
- 두 번째는 1차 오일 쇼크(1974)와 2차 오일 쇼크(1983)후 생산 축소와 물가 인상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시기임
- 세 번째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로 인하여 일본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급속히 하락한 시기임
- 네 번째는 90년대초 超엔고와 버블 경제 붕괴로 복합 불황을 겪고 있는 시기임

### ○ 일본 산업은 구조적인 전환을 통하여 불황 국면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수행

- 50~60년대의 중화학 공업화, 70년대의 에너지 절약화, 80년대의 전자화 및 서비스화, 그리고 90년대 해외 진출을 통한 국제 분업화로 구분
- 중화학 공업화는 패전후 일본 경제가 고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
- 1973년 1차 오일 쇼크 이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에서 에너지 절약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함
- 또, 70년대 후반 2차 오일 쇼크 이후 산업내에서 전자 혁명과 서비스화를 동시에 진행시켜 산업 구조를 에너지 효율적이고 경박 단소형적으로 변화시킴
- 80년대 후반 1차 엔고 시기에서는 비교 열위 산업의 생산 거점이 해외로 이전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초 超엔고와 버블 경제 붕괴 때에는 해외 진출이 보다 가속화 됨

<일본의 경제 성장률 추이(실질 GDP 기준)>



자료: 일본경제기획청, 「경제백서」, 각 호

## 2. 구조적 특징

일본 산업 발전은 주도 산업을 중심으로한 동태적인 성장이 특징

- 일본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주도 산업을 중심으로 동태적인 성장을 달성
  - 戰前에는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이 산업 발전을 주도하였고, 전후 석유화학 산업이 주도 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
  - 이후 70년 대에는 철강 및 조선 산업이, 80년 대에는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이, 90년 대에는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이 주도 산업으로 부상하였음

또, 다른 특징은 기술 융합화와 중소기업 활성화

- 다른 특징은 산업에서의 기술 융합화와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있음
  -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음. 단순한 기술 이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존 산업에의 적용 및 응용을 시도함
    - 80년대 전자 산업의 기술을 이용한 타 산업의 전자화가 기술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임
  - 또, 중소기업이 발달함으로써 대기업의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고, 대내외적인 경제 쇼크 때에는 완충 역할을 충분히 하였음

일본 산업의 경쟁력 요인은 산업 조직의 유연성 및 기술의 연계성, 산업 구조상 및 산업 정책상 경쟁 우위에 있음

- 이러한 배경 아래 일본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산업 조직의 유연성과 기술의 연계성을 들수 있음
    - 자동차, 전기·전자, 컴퓨터 등의 조립 산업은 소재·부품·생산 기계의 최적 조달이 매우 중요함. 이들 생산 업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유연한 피라미트 조직을 이루고 있음
  - 두 번째 측면은 내부적 완결성을 지닌 산업 구조

상의 경쟁 우위를 예로 들 수 있음

- 원자재 이외에는 수입이 거의 없이 산업간 중간 투입 조달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음. 특히, 신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산업 및 기술의 융합이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짐
  - 이에따라 특정 산업에서의 기술 개발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변 산업으로 전파되는 산업 구조적 효율성이 가능하게 됨
- 세 번째 측면은 산업 정책상의 경쟁 우위임
- 일본의 산업 정책이 정부 주도의 단순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상호 합의 결과에 의해서 정책 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복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
  - 만약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산업의 경우에는 자원 투입을 촉진해 해당 산업을 보다 신속하게 육성하였음

## II. 엔高時 不況 克服 戰略

### ○ (산업 내부의 경쟁력 強化)

- 정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경쟁력을 강화
  - 엔저 시기에 들어서면서 경쟁력 강화 노력이 결실을 봄
- 정부는 각종 規制 緩和와 유연한 노동 정책을 통해서 고비용 구조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
  - 고비용 구조 시정을 위해서는 물류·에너지·정보통신·금융 관련 규제를 철저히 완화하였고, 노동 및 고용 제도를 개혁해 노사 모두에게 유연한 고용 시스템을 구축
- 기업은 비용 절감, 기술 혁신,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
  - 생산성 향상, 경영 합리화, 해외 자재 조달 등을 통한 원가 절감, 기술 개발 투자 규모 확대, 기업간 공동 제휴 프로그램 마련 등이 그 노력 들임
- 근로자도 임금 상승 자제, 적극적인 자기 개발 등에 참여함으로써 불황 극복을 위해 協力함

### ○ (해외 進出을 통한 국제 분업화)

- 엔고로 인한 불황 타개를 위하여 생산 거점을 해외로 적극적으로 이전하여 국제 분업화를 실현
  - 엔고 이후 지속적으로 해외 투자가 이루어져 일본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1985년 3%에서 1995년에는 10%로 높아짐
-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 목표는 크게 해외 부품 조달, 무역 장벽 회피, 환율 위험에 대한 헤징으로 구분
  - 해외 부품 조달은 수직적 분업화 달성, 무역 장벽 회피는 현지 생산 체제 구축을 통한 수출 증대, 환율 위험에 대한 헤징은 환율 부작용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산업 발전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일본도 전후 1,2차 석유 위기, 엔고, 버블 붕괴 등 불황으로 인한 4번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였음
  - 본 장에서는 90년대에 엔고 및 버블 붕괴로 인한 불황의 극복 전략을 내외부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함



### 1. 産業 内部의 競爭力 強化

불황 극복의 핵심은 정부, 기업, 근로자의 협력임

- 정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산업 내부 경쟁력을 강화
  - 과거의 경제 위기에서는 일본 정부의 적절한 정책 지원, 기업의 강한 경쟁력 제고 노력, 세계 경기의 호황 등으로 위기 극복에 별 어려움이 없었음
  - 그러나 90년대의 초엔고와 버블 경기 붕괴 시기에 는 정부 주도 정책의 한계, 내수 부진, 그리고 자산 다플레이션 등으로 이를 극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함
  - 이 시기의 불황 극복 전략의 핵심은 경제를 구성 하는 세 가지 축인 정부, 기업, 근로자가 서로 합심하여 자체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다는 데 있음
    - 이런 노력의 결실이 현재의 엔저 시대에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일본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정부 부문, 기업 부문, 근로자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음

정부는 규제 완화와 유연한 노동 정책을 통해서 고비용 구조를 시정

- 먼저 정부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보면 규제 완화(Deregulation) 정책과 유연한 노동 정책으로 대표
  -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부문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 일본 산업이 장기적으로도 활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고비용 구조 시정을 위한 물류, 에너지, 정보통신, 금융 관련 규제를 철저히 완화함
    - 물류 관련 수급 조정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전력·석유·가스 등 에너지의 공급 규제에 대한 제도 개혁을 실

- 행해 비용을 국제적 수준으로 절감시킴
- 전기 통신 사업 등에 외국인 지분 규제를 철폐해 이 부분도 경쟁의 場으로 변화시키며, 국제 금융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금융 개혁을 적극 추진해 금융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함
- 상품 선물 시장을 정비하고, 상품 표준화 제도를 개혁해 산업 기반 부문을 튼튼히 함
- 노동 및 고용 제도를 개혁해 노사 모두에게 유연한 고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줌
- 노동력 수급 조정이나 기업 연금 제도 등을 전면 검토하여 진입 및 퇴출이 용이한 노동 시장 구축을 목표로 함

기업은 비용 절감, 기술 혁신,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

- 다음으로 기업 내부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보면 크게 비용 절감, 기술 혁신, 전략적 제휴 등으로 구분
-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경영 합리화, 해외 자재 조달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침
  - 생산성 향상은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나누어 추진하였음.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각종 로봇을 개발해 생산 자동화를 추구하였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표준 자재 및 부품 관리 등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음
  - 경영 합리화로는 리스럭처링을 통한 사업 구조 조정, 적정 인원 규모로의 축소 등이 있음
  - 해외 자재 조달은 비용 우위의 관점에서 국산, 외국산의 구분없이 철저하게 추진되는 것을 의미함
- 기술 혁신은 두 가지 측면을 목표로 가지고 수행되었으며, 불황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 투자 규모를 더욱 확대하였음

- 하나는 해당 산업의 전세계적인 표준으로 설정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향후의 시장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서비스의 개발에 목표를 둠
-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경우, 자동차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매진하여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비해 높은 품질 경쟁력을 강화시켜 미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성공하였음
- 조선 업체들도 생산 자동화 등에 많은 투자를 실행하여 兪고 이전보다 31% 정도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는 데 성공함
- 그리고 전략적 제휴가 새로운 기업 경영 기법으로 등장하였음. 이는 기술 개발, 생산, 판매 등 기업 경영의 모든 부문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음
- 즉, 공동 설계, 공동 자재 구입, 공동 기술 개발, 공동 생산, 공동 판매 등 비용을 최대한 절감시킬 수 있는 동시에 기업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쟁 기업간 제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근로자는 임금 상승 억제나 자기 개발에 적극 참여

- 근로자 측에서도 불황 타개를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펼침
- 이는 과거의 임금 상승에 대한 관행을 깨고 생산성 향상분 만큼의 임금 증가를 요구하였음
- 또, 감량 경영을 위한 인력 재배치를 위해 개설된 재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2. 海外 進出을 통한 國際 分業化

해외 진출은 80  
년대 후반부터  
급증

- 불황 극복의 외부 전략으로서 8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는 1989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가 1993년 超엔고시대에 이르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1995년에는 514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sup>1)</sup>
    - 지역별로 보면 북미 지역이 44.1%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동남아·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2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부분의 투자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전체 투자액 대비 비중이 1989년의 24%에서 1995년에는 36.2%로 증대됨

###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

	1989	1993	1995
세계	675.4(100)	360.3(100)	513.9(100)
미국	325.4(48.2)	147.3(40.9)	226.5(44.1)
유럽	148.1(21.9)	79.4(22.0)	85.9(16.7)
아시아	82.4(12.2)	65.1(18.1)	118.5(23.1)
제조업	162.3(24.0)	111.3(30.9)	186.2(36.2)
비제조업	505.2(74.8)	246.3(68.4)	311.2(60.6)

자료: 일본무역협회, 「세계와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 1996

- 1993년 기준으로 일본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7.4%로 미국의 25%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1) 80년대 후반의 엔고시에는 세계 및 일본 국내 경제가 호황 국면이었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높았던 반면, 90년대 초반의 엔고 때에는 버블 붕괴로 인한 복합 불황으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매우 낮음. 해외 직접 투자는 중장기적인 대책이므로 장기적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큼

해외 직접 투자  
증가로 인해 제  
조업의 해외 생  
산 비중이 급증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1995년에는 10%로 추  
정됨)  
· 특히 전기 기계와 수송 기계 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1980년의 6.3%와 2.2%에서 1993년에는  
12.6%와 17.3%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업종별 해외 생산 비율 추이>

(%)

	1980	1985	1990	1993
제조업	2.9	3.0	6.4	7.4
식료품	0.7	0.9	1.2	2.4
섬유	4.0	2.7	3.1	3.2
목재·펄프	1.4	1.2	2.1	1.9
화학	1.4	2.0	5.1	7.0
철강	3.4	5.3	5.6	6.3
비철금속	4.1	2.7	5.2	6.5
일반기계	1.8	3.4	10.6	5.8
전기기계	6.3	7.4	11.4	12.6
수송기계	2.2	5.6	12.6	17.3
정밀기계	2.5	3.4	4.7	5.6
석유·석탄	1.0	0.0	0.2	7.1
기타	1.0	0.8	3.1	2.8

자료: 일본통산성, 「다국적 기업의 해외 사업 활동」, 각년도

주: 해외 생산 비율=제조업 해외 현지 법인 매출액/  
국내 제조업 매출액

○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는 해외 부품 조달, 무역  
장벽 회피, 환율 위험에 대한 헤징(Hedging)을  
목표로 함

해외 부품 조달  
은 수직적 분업  
화를 목표로 함

- 해외 부품 조달은 단순히 외국의 값싼 부품 수입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에 노동 집약적인  
생산 공정의 이전을 통한 수직적 분업화 달성을

목표로 함

- 이런 종류의 투자는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곳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다시 일본으로 역수입되거나 제3국으로 수출됨

현지 생산 체제  
구축을 통한 무역  
장벽 회피

- 무역 장벽 회피의 목표는 현지 생산 체제 구축을 통해서 투자 대상국의 다양한 수입 장벽을 회피하면서 수출을 증대시키는 데 있음
- 주로 미국과 유럽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함. 최근에는 중국 등 시장 성장 속도가 큰 지역에서의 투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환율 中和적 생  
산 체제 구축

- 환율 위험에 대한 해정은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노동, 자본, 그리고 다른 경제요소들의 재배치로 인한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
- 환율 변화가 점점 심해질수록 일본 기업들은 환율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생산 거점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예를 들면 엔화의 대달러화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달러권 지역으로의 자동차 공장 이전이 대표적인 사례가 됨

### Ⅲ. 엔低 以後의 不況 克服 戰略

- (수평적 分業 구조로의 변화와 M&A 활성화)
  - 해외 직접 투자의 기본 방향이 수직 분업 구조 달성에서 수평 분업 구조 달성으로 변화
    - 과거와 같은 공정 분업화 방식의 수직 분업 구조에서 현지 완결 형태의 수평 분업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이를 통해서 산업 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며, 현지 수요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함
  - 최근에는 미국 등 선진국의 첨단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M&A가 급증
    - 이는 첨단 산업 부문으로의 효율적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산업 空洞化에 대응과 글로벌 戰略의 재구상)
  - 해외 직접 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로컬 투 로컬(Local to Local) 사업”이나 “신산업 육성 계획”을 수행
    - 로컬 투 로컬 사업은 선진국과의 수평 분업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신산업 육성 계획은 주도 산업 창출을 통한 고용 기회 확대와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함
  - 2000년대에도 자동차·기계 등 기간 산업의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모색
    - 산업별로 해당 산업의 특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을 구상

- 95년 하반기부터 환율이 엔저로 돌아서면서 일본은 해외 투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 전략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보여줌

#### 1. 수평적 분업 구조로의 변화와 M&A 활성화

- 해외 직접 투자의 기본 방향이 과거의 원료 및 부품 조달형 수직 분업 구조에서 제품간 수평 분업 구조로 변화

해외 투자의 기본 방향이 수직 분업 구조형에서 수평 분업 구조형으로 변화

- 수직적 분업 구조하에서는 단순·노동 집약적인 공정은 개도국, 복잡·기술 집약적인 공정은 일본에서 이루어져 완성된 제품을 생산하였음
- 수평적 분업 구조는 하나의 제품이 해외에서 자체적으로 완결되어 생산되거나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함
  - 기술별로 보면 하이테크 제품은 일본, 중간 기술 제품은 해외라는 방식이 있음
  - 품목별로 보면 고품질·고급품은 일본, 보급품은 해외라는 방식을 추구함
  - 이를 통해서 산업 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으며, 현지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됨

선진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

- 대선진국 해외 투자는 과거의 무역 장벽 회피형 투자에서 M&A형 투자로 변화
  - 1996년 상반기(4~9월)중 일본 기업의 미국 기업에 대한 M&A는 67건으로 1995년 한해 동안 대미국 M&A 건수의 90%에 도달

<일본 기업의 외국 기업에 대한 M&A>

		미국	유럽	아시아	세계
1995	건수	76	34	80	212
	매수	27	20	11	64
	자본참여	32	8	42	87
	제3자 할당	7	2	24	35
	평균 금액(백만원)	6,497	2,366	1,437	3,557
1996 4~9	건수	67	29	65	188
	매수	18	18	14	62
	자본참여	29	6	25	65
	제3자 할당	6	2	15	27
	평균 금액(백만원)	7,487	1,590	2,830	4,403

자료: 일본무역협회



- 참여 형태는 주로 매수나 자본 참여를 중심으로 행해졌고, 평균 출자 금액에서도 세계 평균보다 높음
- 실제 업종별로 보더라도 인터넷 및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M&A가 많음
- 아시아 지역에서도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중심으로 자본 참여나 제3자 할당을 통한 M&A가 대폭 증가
- 선진국의 경우는 첨단 산업 부분으로의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개도국의 경우는 미래의 현지 수요 증가에 대비

## 2. 산업 공동화에 대응과 글로벌 전략의 재구상

단순한 생산 거점 이전형 투자가 산업 공동화 문제를 야기

-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이 주로 비교 열위 산업의 생산 거점 이전형 투자에 집중됨으로써 이들 업종에 대한 공동화 문제가 대두
  - Economist지(1997. 1.4~10)에 따르면 일본의 해외 생산 제품이 본국으로 역수입됨으로써 무역 수지 흑자폭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섬유, 전기 및 일반기계의 역수입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 산업의 공동화가 우려

산업 공동화 방지와 신산업 구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산업 공동화 방지와 21세기 신산업 구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 ‘로컬 투 로컬(Local to Local) 사업’은 일본과 선진국의 특정 지역이 관련 산업 기술을 서로 제휴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임
  - 선진국과의 기술 및 생산의 수평적 분업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예: 일본 아키타 현과 미국 미네소타주의 전자기 분야 산업 교류)

기간 産業의 경쟁 優位를 유지 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의 재구 상

- ‘신산업 육성 계획’은 15개 신규 성장 유망 분야를 선정해 이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
  - 새로운 주도 산업 창출을 통한 고용 기회 확대와 기존 산업의 고부가치화를 목표로 함
- 일본 기업들은 2000년 대에도 경쟁 優位를 지속적 으로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을 재구상
  - 자동차 산업은 경쟁 優位의 원천을 기술력과 현지 생산 체제 구축에 둔
    - 품질 향상을 위한 자본 투자를 대폭 증가시켜 나갈 계획임
    - 오는 2000년 일본 승용차의 예상 해외 판매량은 11.3백만 대로 예상되는데, 그중 해외 생산분이 8.1백만 대로 전망됨
  - 기계 산업은 경쟁력 유지 목표를 생산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제품 차별화에 둔
    - 중간 기술 제품은 해외 생산, 고급품은 국내 생산으로 하는 이원적 생산 체제를 구축함
  - 조선 산업은 중국 등 저임금 지역에 조선소를 설립 또는 합작 투자해 생산 공정을 중심으로한 유기적인 분업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함
  - PC, 반도체 등 산업용 전자 산업의 경우는 기술 혁신을 핵심 관건으로 보고 기존 경쟁 업체들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종합 경쟁력을 확보함

## IV. 우리나라의 不況 克服에 주는 示唆點

## ○ (우리나라와 일본의 불황 상황 比較)

-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불황은 산업 景氣 변동 측면과 산업 구조 전환 측면이 複合되어 있는 특성을 보임
  - 그리고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산업 부문의 총체적인 경쟁력 약화라는 점에서는 일본의 엔고 불황과 비슷하지만, 주도 산업 부재에 의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엔저이후의 상황과 유사한 점을 보임
  - 일본의 불황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총체적인 경쟁력 약화, 고비용 생산 구조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기술력 및 생산성, 해외 분업 체제 구축 등이 열위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음

## ○ (우리의 불황 克服 방안)

- 단기 과제로는 불황 극복을 위하여 정부, 기업, 근로자가 삼위 일체가 되어 산업 체질 개선에 노력해야 함. 또한 R&D를 확충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서둘러야 함
  - 자동차 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부품 공용화, 생산 방식 전환 등을 도모함
  - 공작기계 산업은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서둘러 개발하고, 애프터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
  - PC 및 반도체 산업의 경우는 기술 개발로 제품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하며, 공동 기술 개발 및 부품 공용화를 위한 기업간 제휴를 활성화시켜야 함
  - 조선 산업은 기본 부품 및 공정의 해외 생산을 더욱 확대해 나가며,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 방안을 수립·실천함
- 장기 과제로는 글로벌 경영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현지화 경영에 박차를 가해야 함. 그리고, 우주항공, 정보통신, 신소재, 바이오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배가시켜 산업 구조 조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함
  - 현지화 경영은 일련의 생산 프로세스가 현지 문화에 바탕을 두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통하여 환율 및 경기에 中和적인 경영 체제를 구축함
  - 산업 정책의 목표는 규제 완화, 제도 개선, 환경 정비 등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잡아나가야 함

이중적 특성을 띠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 불황

-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불황은 산업 경기 변동 측면과 산업 구조 전환 측면이 복합되어 있는 특성을 띠고 있음
  - 아래 표는 일본이 각 불황기를 맞이하여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였는지를 나타냄
  - 1차 오일 쇼크때의 산업 구조 전환과 감량 경영, 엔고 및 버블 붕괴 때의 고비용 구조 개선과 경쟁력 회복 노력, 엔저 이후의 성장 가속화 전략 등으로 구분됨

<일본의 시기별 불황 극복 전략 비교>

		불황 정도	불황 극복 전략	효과
일본	1차 오일 쇼크 이후(1975)	산업 생산 증가율: -3.5% 설비 투자 증가율: 5.3% 고용 증가율: 0.0%	정부: 에너지 절약형 산업 구조 전환 정책 기업: 감량 경영, 기술 개발, 시장 확대 노력	경박 단소형 산업 구조 전환, 기업의 수익 구조 개선
	엔고 및 버블 붕괴 이후(1993)	산업 생산 증가율: -4.0% 설비 투자 증가율: -10.5% 고용 증가율: 0.2%	정부: 규제 완화, 노동 정책의 유연화 기업: 비용 절감, 기술 혁신, 전략적 제휴	고비용 구조 개선, 산업 경쟁력 회복
	엔저 이후(1996)	산업 생산 증가율: 2.9% 설비 투자 증가율: 5.3% 고용 증가율: 1.2%	정부: 신산업 육성 계획, 산업 공동화 대응 프로그램 마련 기업: 수평 분업화를 목표로 한 해외 진출, M&A 활성화, 글로벌 전략의 재구상	산업 구조 조정의 기반 마련, 고용 창출, 성장 가속화, 기업 경쟁력 강화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업 불황 상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음
  - 유사점은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 고비용 생산 구조 등이며, 차이점은 기술력 및 생산성 열위, 해

외 분업 생산 체제 미구축 등임

- 또, 우리나라 불황은 총체적인 경쟁력 약화라는 점에서 엔고 시기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주도 산업 부재와 관련된 구조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엔저 이후의 상황과 유사함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업 불황 상황 비교>

	불황 상황
유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체적인 경쟁력 약화</li> <li>- 고비용 생산 구조</li> <li>- 환율 변동의 영향</li> <li>- 경영 합리화에 대한 요구</li> <li>- 주도 산업 부재</li> </ul>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력 및 생산성 열위</li> <li>- 해외 분업 체제 미구축</li> <li>- 협력 체제 불안정</li> </ul>

불황 극복을 위한 단기 과제는 산업별 내부 경쟁력 강화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 우리나라의 불황 극복 방안을 도출해보면 우선 단기 과제로 각 산업별로 내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기존 산업 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시급히 달성해야함
  -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에는 산업 고유의 특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치가 설정된 계획이어야 함
  - 자동차 산업의 경우, 비용 절감을 목표로 주요 부품의 공용화 및 생산 방식의 전환 등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임
  - PC 및 반도체 산업은 기술 개발을 통한 제품 표준화를 선도하며, 공동 연구 및 부품 공용화를 위한 기업간 제휴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함
  - 조선 산업에 있어서는 현재 중국 등에서 진행중에 있는 기본 부품이나 공정에 대한 해외 생산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며, 성과 평가제를 도

- 입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함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기술 개발을 통한 비교 우위 제품의 생산을 의미하므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자동차 산업과 공작기계 산업의 경우 제품 업그레이드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산업별 불황 극복 과제>

	단기	중·장기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 절감 방안 수립</li> <li>· 부품 공용화, 생산 방식 전환</li> <li>-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제품 개발</li> <li>- 제품 개발 시간 단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 지역에 대한 현지 생산 체제 구축</li> <li>- 기술 혁신을 통한 제품 업그레이드</li> </ul>
PC 및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개발을 통한 제품 표준화 선도</li> <li>- 기업간 제휴 활성화</li> <li>· 공동 기술 개발, 부품 공용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 CPU 개발에 대한 투자</li> <li>- 비메모리 반도체로의 생산 구조 전환</li> </ul>
공작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 개발</li> <li>- 제품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질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개발로 고부가가치 중형 공작기계 시장 참여</li> </ul>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부품 조달의 확대</li> <li>-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 방안 수립</li> <li>- 사업부별 독립 재산제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분업 생산 체제 구축</li> </ul>

장기 과제는 글로벌 경영 네트워크 구축과 산업 구조 조정

- 장기 과제는 글로벌 경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지화 경영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산업 구조 조정이 요구됨
- 해외 직접 투자의 목표는 단순히 비교 열위 산업의 해외 이전에서 벗어나 제품간·공정간 분업 체제 구축이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지 생산 체제 구축에 두어야 함
- 현지화 경영은 생산, 조달, 판매 등 일련의 프로세스가 현지 문화에 바탕을 두고 뿌리내릴 수

- 있도록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통하여 환율 및 경기에 中和적인 경영 체제를 구축함
  - 산업 구조 조정은 우주항공, 정보통신, 신소재, 바이오 등 미래의 성장 유망 산업을 창출해가는 과정을 의미함
  - 이를 위한 산업 정책의 목표는 규제완화, 제도 개선, 환경 정비 등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이어야 함
  - 일본도 뚜렷한 주도 산업 발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를 창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주요 참고 문헌>

- 임천석(1994. 12), 「엔고하에서의 일본 기업의 대응 실태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94-25
- 심승진(1996. 8), “일본 산업의 경쟁력과 동아시아 분업 구조 전망”, 「일본의 정책 변화와 장래」, 산업연구원 정책세미나
- 高賀義弘(1991. 10), “日本の 産業 構造 展開와 特徵”, 「日本 産業의 國際的 調整」
- 齊勝 健(1996. 6), 「日本 産業의 大轉換」, 富士綜合研究所
- 日本貿易協會(1996), 「世界と 日本의 海外 直接 投資」
- Yukio SUZUKI(1996, Autumn), “Japan’s Resurg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NRI Quarterly*
- Chi Hung KWAN(1997, Spring), “The Rise of Asia and Japan’s ‘Hollowing Out’ Problem”, *NRI Quarterly*